

테이크 백에서 엉덩이 죽은 마지막에 따라가는 기분으로

팔→어깨→무릎→엉덩이 순으로

버디와 보기는 친구! '드라이버는 쇼, 퍼터는 돈' 등 골프와 관련된 격언들이 많다. 이 격언들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 놓으면 플레이에 도움이 된다. 특히 '버디와 보기는 친구'라는 격언은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항상 되새겨야 할 중요한 문구다.

버디를 노리는 플레이를 펼칠 경우 긴장과 욕심이 앞서 파세이브도 하지 못하고 보기를 기록할 수 있어 버디와 보기는 쌍둥이 형제와 같다 고도 한다. 항상 파를 기록하겠다는 자세로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좋다. 안전하게 파를 기록하겠다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의외로 버디를 낚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버디를 기록해야겠다는 욕심은 차치 보기를 기록하면서 플레이가 훌들리고 다음 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그날의 플레이를 망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번주 골프클리닉은 구력 4년의 보기플레이어인 김영순(여·50·서구 염주동)씨가 찾았다. 김 씨는 김진철 프로에게 딱히 한가지에 대한 클리닉보다는 전반적인 스윙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김 프로는 김 씨의 어프로치부터 점검에 들어갔다. 김 씨는 보기플레이어답게 안정된 어프로치를 보였으나 체중을 오른발에 싣고 정확한 핸드퍼스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김 프로는 김 씨에게 좀 더 핸드퍼스트 자세를 취해야만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게 독표에 공을 더 접근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중을 미리 왼발에 옮겨 놓아야 정확한 샷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프로는 김 씨에게 공을 때리고 난 후 클럽 페이스가 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방향 하늘을 보도록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김 프로의 원포인트 러跚을 통해 정확하고 부드러운 어프로치 동작을 하게 됐다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언 샷에 대한 클리닉이 진행되자 김 씨는 진땀을 흘리며 김 프로의 지도를 힘들어 했다.

김 프로는 김 씨의 아이언 샷이 텁에서 심한 오버스윙이 되는데 테이크 백에서 엉덩이가 따라 돌아 힘을 심지 못해 비거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프로는 여자골프의 경우 대부분 유연성이 넘친 골퍼들에 비해 좋기 때문에 테이크 백에서 팔과 함께 엉덩이가 회전하게 되어 오버스윙이 발생하게 되고 힘을 받지 못해 비거리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항상 테이크 백에서 엉덩이 죽은 마지막에 따라간다는 느낌을 갖고 팔-어깨-무릎-엉덩이 순서로 테이크 백이 되도록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김 프로의 지적을 받고 엉덩이 죽을 무너뜨리지 않은채 테이크 백을 하자 처음에는 진땀을 흘리며 힘들어 했지만 10여분이 지나지 않아 엉덩이가 쓸리지 않게 텁에서 오버스윙을 잡을 수 있게 됐고, 강한 임팩트로 인해 비거리가 늘어났다.

김 프로는 연습장에서 항상 엉덩이를 꼭 잡은 채 테이크 백 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이때 왼쪽 어깨를 충분히 회전시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프로와 함께 '엉덩이 죽 고정시키기' 훈련을 한 김 씨는 훨씬 강하게 힘이 전달되는 것 같다고 좋아했다.



김제로 어깨를 돌려 만든 부자연스러운 피니쉬 동작(사진 위)과 어깨가 충분히 회전이 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피니쉬 동작.

김 프로의 조언으로 아이언 샷이 물라보게 달라지자 김 씨는 드라이버는 잘되는데 우드가 잘 맞지 않는다면 우드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김 씨의 드라이버는 본인의 말대로 특별히 고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된 스윙을 통해 호쾌한 스윙을 자랑했다. 하지만 우드는 아이언 샷을 하는 방식대로 찍어치기 때문에 샷이 불안정했다.

김 프로는 우드는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찍어치는 것이 아니라 쓸어치는 기본으로 스윙을 길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같이 스윙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을 할 때 클럽 끝부분이 리드하면서 인에서 인으로 잡아당기는 스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프로는 특히 여성들이 테이크 백에서 엉덩이 회전을 자제하고 엉덩이 죽을 고정시키는 연습을 통해 팔-어깨-무릎-엉덩이 순으로 회전이 돼야만 텁에서 오버스윙과 비거리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칙은 아이언 샷이나 드라이버 모두의 기본이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스윙을 할 때 엉덩이 죽 고정이 돼 있나 그렇지 않은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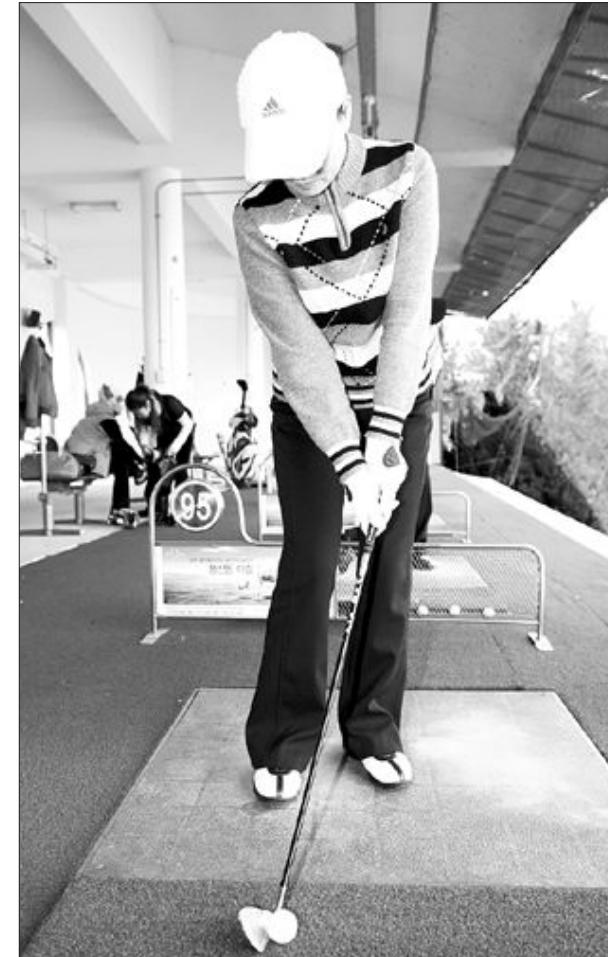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정·지도=김진철 (KGPA 프로)

주말판 광주일보 '스포츠'에서는 격주로 '실전 클리닉 & 즐거운 골프'를싣고 있습니다. 프로골퍼의 수준높은 무료 지도로 아마골퍼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클리닉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광주일보 체육부(220-0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테이크 백에서 엉덩이가 너무 회전돼 오버스윙을 보이고 있는 잘못된 동작(왼쪽)과 테이크 백에서 엉덩이 죽이 고정돼 오버스윙이 교정된 잘된 동작.



체중이 오른발에 있고 핸드퍼스트가 안된 잘못된 어프로치(왼쪽)와 체중은 왼발, 핸드퍼스트 자세가 잘된 어프로치.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하시고—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KM토털웨딩컨설팅 동구 궁동 코밀B/D6층605호 디지털현상소, 웨딩포토디자인 예식 촬영전문&관리 ☎(062)222-3001	최경빈 요양원 남구 이장동589(포총사 옆) 노인성 질환을 알고 계신 65세이상 남녀 이로신들을 위한 경비전문요양원 ☎(062)675-2711~2
광동다방 남구 방림동 국민 건강관리공단 옆 밀기즘, 토마토즙, 솔잎차, 더덕즙, 산수유 각종과일쥬스,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062)671-2251~6	토글김치찌즈 운천 저수지옆 3년 숙성김치사용 해물아구찌즈 대표 김 광 일 ☎(062)382-4636
운천골명가 서구 상무2동 운천저수지 건너 계절음식 전문 대표 김 미 용 ☎(062)375-2114	예지원 생촌동 운천저수지건너 호남대생촌캠퍼스앞 전통 한정식 대표 김 인 영 ☎(062)371-5566
통나무집까반느 서구 풍암동 풍암지구 저수지 맞은편 아늑한 분위기, 커피전문 대표 서 석 근 ☎(016)9308-1717	세종공인중개사 서구 본촌동 광신대입구 지산중 정문앞 토지, 건물, 상가, 매매, 앤드전문 대표 송 동 호 ☎(062)572-4949
한솔회관 북구 문흥동 광명@후문 셋터코아4거리 단체모임, 예악활동, 생선조림 전문점 대표 고 주 석 ☎(062)264-2059	태원당한약국 북구 우산동 등사무소 옆 관절염, 전문치료 대표 박 조 영 ☎(062)511-0709
잉크천국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장성우체국옆) 열식, 앵글, 하수구(돌림), 출장수리 전문 입주자 특별할인 A/S ☎(061)392-2059	